

윤정수 "12살 어린 여자친구와 이미 혼인 신고 했다"

등록 2025.08.26 03:04:00



[서울=뉴시스] 손정빈 기자 = 코미디언 윤정수가 12살 어린 여자친구와 이미 혼인 신고를 마쳤다고 했다.

윤정수는 25일 유튜브 채널 '여의도 육퇴클럽'에 나와 아내와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과정을 얘기했다.

코미디언 강재준은 "이 결혼 진짜냐"며 "어떤 분은 사랑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"고 말했다.

윤정수는 "사실 혼인 신고도 했다"며 "와이프가 하자고 해서 빨리 했다"고 말했다.

그는 아내와 첫 만남을 떠올리며 "10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. 들디대볼까 했는데 잘 안 됐다.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연락이 됐고 밥을 먹기로 했는데 여전히 예뻐다"고 했다.

이어 "지난해 11월에 만나서 올해 1월에 사귀었고 4~5월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"고 말했다.

윤정수는 "원래 나는 내가 우선인 사람이었다.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마침 이상형이 나를 좋아해주니 이런 운명이 어디있나 싶더라"고 했다.

윤정수는 자녀 계획을 언급하며 "2세에 대한 열망이 있다. 가족이 없지 않나. 그 가족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느낌이 있을 것만 같다"고 말했다.

윤정수는 아내와 올해 중 결혼식을 할 계획이다. 윤정수는 1972년생이고, 필라테스 강사인 아내는 1984년생이다.

